

ExxonMobil, BP의 IPA 사업 인수

유럽 IPA 시장에서 입지강화 · 매출신장 기대 ... 생산능력 확대 계획

ExxonMobil Chemical이 BP Chemical과 BP의 IPA(European Isopropyl Alcohol) 사업부 판매 및 마케팅 자산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2월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ExxonMobil은 유럽 IPA 매출이 증가할 것 전망하고 있다.

ExxonMobil Chemical Global의 T.J. Wojnar 부대표는 “BP Chemical의 IPA 사업인수를 통해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판매 및 마케팅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세계 IPA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생산능력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를 대비해 IPA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저코스트 Debottlenecking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xonMobil에 따르면, ExxonMobil은 지금까지 유럽을 제외한 세계 IPA 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BP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유럽 시장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ExxonMobil은 세계 최대 석유화학기업 가운데 하나로 약 150개국에서 석유화학 생산설비 또는 마케팅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Olefin을 비롯해 Aromatic, Fluid, 합성고무, PE(Polyethylene), PP(Polpropylene), OPP(Oriented PP) 포장 Film, 가소제, 합성윤활유 원료 및 연료 첨가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수진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0>